

2017년 5월 14일, 성산읍 신산리 신산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 : 김경순(여, 1930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제보자2 : 김경화(여, 1932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- 줄거리: 옛날에 급하게 배가 아플 때 잡신 쫓아내는 소리를 하면서 배를 누르면 아픈 것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이다.

**[조사자]** 배가 아프던 허문 곱란이 들렸던 겁니까?

**[제보자1]** 응. 옛날은, 급하게, 이런 배가 아프면 그, 막이 아픈 사람 갈라정 늑저냥이, 손가락이로 막 돌리주게. 일곱 번을 돌렸어. 웬손 꼬왕, 이디 웬풀 졸라맹 영 꼬왕 누웁 혼잠 자나면이, 배 아픈 거 좋아났어, 옛날은.

경하고

“ 곱란, 이월, 남살, 도살, 드라리고, 돛디, 사슴 다 잡아먹던 송백중 아덜! 어디라고 범흐느냐! 이 시간으로 곧 떠나라.”

고,

그추록 입성귀질허면서 그 곱란이, 이거, 베포롱 돌라그네 웬손 꼬왕 이거 졸라메영 요렇게 헤여그네 누웁 혼잠 자나면 그 곱란이가 좋아났어, 옛날엔, 약도 었고, 소금물이나.

**[제보자2]** 그 잡귀, 거세허는 거.

**[제보자1]** 잡신 쫓아내는 소리, 아까 소리는.

**[조사자]** 한 번만 더 해 줘서.

**[제보자1]** 그거?

“ 곱란, 이월, 남살 도살, 드라리고, 돛디 사슴 다 잡아먹던 송백중 아덜!”

송백중이엔 헌 건 배 안네, 충, 회충.

“ 송백중 아덜. 어디라고 범흐느냐! 이 시간으로 곧 떠나라.”

고.

음, 그러면서 소금물 캥 멕이곡, 그 환자를. 소금물 캥 멕이곡, 이런 뵈고 왼손, 이런 츠레로 안 헤네, 웬손을 파그네, 왼풀을 졸라메영, 요렇게 뵈왕, 누웁에 혼 잠 자라고, 베포롱 돌르곡 헤가민 쪼끔 배가 녹여 갈 거주게양, 혼 잠 자나면 그 뵈이 었어져.

- 핵심어 : 송백중, 소금물, 웬손, 웬풀, 잡신 쫓아내는 소리, 배, 곱란